

## 철학사

### 62 화이트헤드와 과정 신학 (휘튼 대학 아서 홈즈 박사)

모두들 학기말까지 서평 작성 안내문을 받았나요? 제가 벌써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데, 두 번이나 놓치셨네요. 어디 계셨죠? 여기 계신 분 있나요? 좋아요. 그럼 오늘은 다시 화이트헤드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저는 특히 화이트헤드의 신 개념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전반적인 철학 체계, 특히 형이상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에 대한 이해와 신과 자연의 관계는 당연히 그의 형이상학적 체계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신 개념은 그런 의미에서 체계 의존적입니다.

네, 신이라는 개념은 체계 의존적이죠. 왜냐하면 신과 자연의 관계 속에서 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자연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죠. 지난 시간에 화이트헤드를 소개하면서, 화이트헤드에게 있어 모든 현실의 기본 구성 요소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정체성을 가진 실체가 아니라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은 1/50초처럼 아주 짧은 순간 동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1/50초는 상당히 짧은 시간 이죠. 그는 그런 아주 짧은 사건들을 '실체 사건'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라는 단어, 때로는 '실체'라는 단어를 더 큰 규모의 사건에만 사용합니다. 하지만 수업 시간처럼 작은 사건이든, 대학 교육처럼 큰 사건 이든, 미국의 역사처럼 거대한 사건이든, 각각의 사건은 규모와 지속 기간이 다릅니다. 어떤 사건이든 간에, 모든 사건은 세 가지 구성 요소,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 가지 요소는 객관적 데이터, 즉 원인, 효율적 원인, 즉 객관적 데이터,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결정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시 강조하는 이유는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새로운 사건을 시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 과정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과정의 객관적인 데이터가 첫 번째 과정의 기존 상황과 교차하게 됩니다. 그 교차점에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과관계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포스트모던적인 모든 것들의 기본 모델이 인간 의식이라면, 인간 의식 안에서 우리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그가 물리적 파악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인식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파악(prehension)은 물론 라이프니츠의 용어입니다.

이는 '파악' 또는 '이해'의 줄임말입니다. 무언가를 '파악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긍정적 파악과 부정적 파악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긍정적 파악이란, 당신이 그 영향을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것입니다. 부정적 파악이란, 당신이 그 영향을 단순히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입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건은 물리적으로 파악 가능한 객관적 자료에 의해 발생하며, 이는 인지적 경험이 아니라 정서적 경험입니다. 따라서 그는 데카르트, 로크, 버클리, 칸트와 같은 사람들의 표상적 인식론을 비판하면서, 그들이 인지적인 것, 즉 개념과 관념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고 말합니다. 지각적 경험이나 지각적 사건에서 최초로 작용하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 인과적 자극이라는 것입니다.

인지적인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각적 경험은 다른 모든 종류의 사건에 대한 패러다임이 됩니다. 따라서 무의식적인 존재에게조차 물리적 파악에 반응하는 저급한 감각이 존재합니다.

즉, 인과관계의 메커니즘입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물리적 파악에 대해서요.

영원한 가능성이란,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가능성을 말하며,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 구체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객관적인 데이터, 이 새로운 경험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 즉 대안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의식적 경험 속의 영원한 가능성들은 물론 관념이며, 이는 그가 개념적 파악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포착됩니다. 이는 명백히 인지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관념은 데카르트, 로크, 칸트에게 그랬던 것처럼 경험 속에서 관념들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것처럼 주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 흡의 말이 더 정확했어. 그 책은 강렬하고 생동감 넘치는 존재감을 보여주고, 그 안에 담긴 아이디어들이 돋보이지.

인지적인 것보다는 정서적인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는 만약 그것들이 논리적인 가능성이라면, 그것은 일종의 객관적인 논리적 가능성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물의 본질상 이러한 논리적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수는 있지만,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성을 인식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창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가능성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항상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객관적인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특히 후기 저작에서 그는 이러한 것들을 영원한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즉, 그것들은 사유의 대상이며, 로크에게 있어 관념이 대상인 것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사고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객관적인 가능성들이죠. 따라서 이러한 객관적인 데이터라는 인과적 자극에 반응하여 온갖 가능성이 생겨나는데, 의식적인 과정에서는 우리가 그것들을 인식하고, 무의식적인 과정에서도 그것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그 가능성들 중에서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결정'입니다. 인간의 의식 속에서 그것은 대개 의식적인 결정입니다.

이것이 제가 새로운 기븐스(Givens)를 가지고 하려는 일입니다. 의식적인 결정이죠. 하지만 생물학적, 물리적 과정 등 무의식적인 과정에서도 어떤 경계선, 즉 선택성이 존재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실현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 실현됩니다. 바로 이 결정이 그가 말하는 주관적 목표를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 속에서 선택적인 가능성이 당신이 추구하는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추구할 목표입니다. 당신은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낼 겁니다. 알겠죠?

자, 초기 주관적 목표는 자연적인 인과 과정에 의해 제시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데이터 결과가 주어졌을 때, 어떤 과정 이든 초기 주관적 목표는 단순히 이 새로운 사건의 주관적 목표가 됩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흡수됨으로써 그 새로운 사건의 본질적인 목적이 된다는 점에서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본질적인 것이죠. 그는 모든 것을 목적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목적론적 설명입니다. 기계론적 우주가 아니라 목적론적 우주입니다.

자, 의식을 가진 존재의 경우, 그 최초의 주관적 목표는 수정된 주관적 목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수정된 주관적 목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의 영향에 저항하고 새로운 자극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반려견조차도 때로는 주인의 부름이나 휘파람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옆집 고양이를 쫓아가곤 합니다. 처음의 주관적인 목표는 고양이 냄새를 맡는 순간 수정되는 주관적인 목표로 바뀌는 것이죠. 저는 개들이 보기 전에 냄새를 맡는다고 생각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라는 격언은 그런 의미에서 개에게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도 하기 전에 돌다리도 두드리는 경향이 있죠. 개는 냄새를 먼저 맡고 나서 살펴보는 식입니다.

하지만 외모는 수정된 주관적 목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초기 목표와 수정된 주관적 목표가 있는 것이죠. 모든 상황에서 마찬가지입니다.

.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일에는 점진적인 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천지 만물에 걸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다양한 정도로 이러한 과정이 진행됩니다. 반면에 주관적인 목표라는 개념은 목적론적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로 이어질까요? 바로 사건의 완성으로 이어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새로운 데이터에 내재된 가능성이 실현되면, 그때 비로소 사건이 완료되는 겁니다. 마치 유전적 과정과 같은 거죠. 생물학적 비유를 들어 설명하자면, 유전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은 인지적인 의미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인과적인 자극 때문에 임신이 되는 거죠. 임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

말하자면, 배아 발달 과정에서 가능성이 나타나고 선택되는 발달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사건이 탄생하고, 주관적인 목표가 성숙 단계에서 결정되고 성취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숙한 사건은 점차 데이터를 소멸시켜 나갑니다.

이해되지요 ? 그러니까 탄생, 성숙, 죽음이 또 다른 탄생, 성숙, 죽음을 낳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변증법, 헤겔, 마르크스? 정, 반, 합.

아시겠습니까 ? 헤겔 전통의 영향은 세계 과정에 대한 이러한 완전한 이해에 있습니다 . 세계 과정 전체가 변증법적인 것입니다. 변증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 과정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는 보존 되지만 , 그 데이터가 제공하는 새로운 가능성에 의해 초월됩니다. 이해되지 않아요? 종합 과정에서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의 완료는 그가 말하는 만족으로 이어집니다.

만족감.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용어가 의식적인 지각 경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이것이 바로 패러다임입니다.

제가 말하는 '패러다임'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외국어에는 특정 동사 패러다임이 있어요. 동사 활용형을 알고 싶으면 패러다임으로 돌아가는 거죠. 저는 천재를 알고 있어요, 천재 말이에요.

프랑스어로요. 등등. 이해되지요 ? 그러니까 의식적인 지각 경험이 패러다임인 거예요.

지각 경험에 있어서, 그것은 흔히 볼 수 없는 것을 흡수 할 기회를 얻었을 때 느끼는 만족감 입니다. 화이트헤드는 바로 이러한 만족감 때문에 미적 만족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미적이라는 말은 원래 감각적 만족이라는 의미의 유럽 대륙 게르만어권 문화권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스타나 미는 감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칸트의 초월적 미학 또한 감각과 관련이 있죠. 하지만 이스타나미는 영어권에서 흔히 쓰이는 '미적'이라는 의미, 즉 미적 만족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경험의 절정인 이 미적 만족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건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 이 세 가지 요소가 하나로 어우러져 통일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

그래서 그 사건은 하나의 감정, 하나의 경험으로 귀결됩니다. 이제 우리가 '경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처음으로 피칸 파이를 맛본 경험처럼 말이죠. 얼마나 멋진 경험인가요.

대학 4년 교육, 휘튼에서의 경험일 수도 있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인류 역사의 어느 시기가 끝날 무렵, 역사가가 되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 "이 모든 역사는 하나의 인간 경험이었어." 고유한 정체성을 지닌, 통일된 느낌을 주는 경험 말이죠.

이해되지요? 그러니까 이 만족감은 질서 있는 통일체, 즉 대립되는 것들의 조화인 거예요. 대립되는 것들이요? 네, 현실과 가능성의 대조죠. 전체적인 경험 속에서 대립하는 요소들이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룰 때 느껴지는 강렬한 감정인 거예요.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들은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방식을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이해되지 않아요? 대조적인 요소들이 교향곡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말이죠. 사람들이 언제 박수를 쳐야 하는지 어떻게 아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바로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입니다.

그 경험은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미학적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러한 과정, 그러한 사건들에서 만족감에 기여하는 것은 바로 '좋은'입니다.

선은 아름다움을 위한 수단이다. 화이트헤드에게 있어 이는 명확한 사실이다. 그의 윤리는 공리주의 윤리이다.

선은 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리고 악은 그 조화에 대한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반대이다. 악은 위대한 종합을 통해 드러나는 목표에 저항하거나, 혹은 지루해질 정도로 사소하기 때문에 그러한 반대를 낳는다

내용 전개에 불필요하고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는 강의는 더욱 나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악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상당 부분은 결국 조화롭게 통합될 대립되는 것들의 충돌일 뿐입니다. 화이트헤드가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영국 공군(당시에는 왕립 비행단, 지금은 왕립 공군으로 불리게 됨) 소속 조종사였던 아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아들의 삶이 역사의 한 부분으로 통합되면서 아름답게 마무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악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19세기의 진화론적 낙관주의와 이상주의를 떠올려 보십시오.

자, 이제 아시겠죠? 지각 경험과 같은 사건에 대한 이러한 특징 규정은 한 사람의 삶에 대한 특징 규정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 역사, 모든 우주 역사에 대한 특징 규정이기도 합니다. 이해 되지요? 그리고 그가 제시한 궁극적인, 말하자면 궁극적인 설명 범주는 창의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대립하는 것들의 충돌 속에서 새로움이 생겨나는 방식.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을 낳는 방식. 죽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자, 만약 이것이 세상의 과정, 창조 과정의 본질이라면,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창조 과정, 세상의 과정이라면, 그것은 인간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것은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데이비드 흘이 말한 개인적 정체성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흘은 우리가 의식 속에서 알고 있는 개인적 정체성은 단순히 지각들의 묶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경험에 대한 현재의 기억, 즉 그 지각들의 묶음만이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개인적 정체성입니다.

물론 화이트헤드는 그러한 인식들을 일정 기간에 걸쳐 나열합니다. 하지만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경험의 연속성입니다. 그래서 10년 전 자신의 사진을 보고 "그래, 저게 나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연속성 덕분에 사진 속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의 자아는 단지 통일된 구조를 가진 사건들의 사회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사건들의 사회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신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사건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오히려 그 대표적인 예라 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은 지각 경험의 형상으로 이해됩니다.

달리 말하자면, 신은 신이 되는 경험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됩니다. 자의식은 궁극적인 존재를 바라보는 렌즈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는 신의 본성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원하신다면, 어떤 사건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삼중적 본성을 생각해 보세요. 좋습니다, 여기 어떤 사건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삼중적 본성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삼중적 본성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삼중성은 단지 또 다른 예시일 뿐입니다. 삼중적인 사건의 예시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존재는 다른 모든 존재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건입니다.

영원한 사건. 알 겠어요? 시작도 끝도 없는 사건. 영원한 사건이에요.

그가 말하는 삼중 본성은 하나님의 근원적 본성, 즉 그분의 근원적 본성과 그분의 결과적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형용사적 성격. 알겠죠? 이제 여러분은 단어의 의미를 암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어를 보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형용사적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yakio 에서 유래했는데, 던지다, 내던지다라는 동사예요.

초월적이고, 압도적이고, 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의 초월적인 본성 안에 신이 자연에 무언가를 부여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결과적인 본성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시는지, 어떤 사건이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무엇을 되돌려 주시는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본성부터 시작 해야 합니다 .

그게 바로 진리니까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결과적인 본성, 초월적인 본성은 변하지만, 근원적인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근원적인 본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영원한 대상들의 질서 있는 조화입니다. 영원한 대상이란 영원한 가능성입니다. 다시 말해, 그가 말하는 것은 신을 모든 논리적 가능성의 총합 으로 생각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과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십시오. 성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영원한 형상, 영원한 이상, 플라톤의 형상이란 무엇일까요? 그것들은 신의 마음속에 있는 개념적 가능성, 신의 마음속에 있는 원형입니다.

중기 플라톤주의 의 영향을 크게 받은 초기 교회의 로고스 전통으로부터 얻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 지난번에 화이트헤드의 사상에 영향을 준 세 가지 요소 중 세 번째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교부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화이트헤드는 플라톤의 형상론을 스토아학파의 로고스 언어로 번역한 것을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회는 이 언어를 창조주 하나님과 성육신하신 로고스에게 적용했는데,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 즉 모든 영원한 이치 , 모든 형상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예수의 전지성을 설명하는 방식이었어요. 알렉산드리아 학파 전통, 유스티누스 순교자, 아우구스티누스, 안셀무스, 토마스 아퀴나스 등 중세 전통 전체가 그렇게 설명했죠. 하지만 화이트헤드는 자꾸만 알렉산드리아 학파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경험, 즉 하나님 자신의 경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께서 이러한 생각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분의 영원한

지혜, 그리고 그분의 창조 가능성에 대해 생각 해야 합니다 . 자연 그 자체, 세상, 그리고 세계 역사의 발전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것을 경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느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각은 그분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느끼십니다.

화이트헤드가 계속해서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잠시 후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가능성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가 '객관적 데이터, 즉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물리적 파악'이라고 부른 것이 있습니다. 이해되지요? 그리고 신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로 그러한 정서적 감각으로 경험하면서 동시에 개념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모든 영원한 가능성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신은 초월적 본성으로 세상의 과정에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네, 최초의 주관적 목표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신입니다.

하나님은 맹목적인 기계적인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물론, 인간의 경험을 통해 이제 우리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에 저항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제시하시는 목표와 목적을 바꿀 자유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근원적 본성은 자연 현상의 두 번째 요소에 해당하고, 하나님의 결과적 본성은 자연 현상의 첫 번째 요소에 해당하며, 하나님의 초월적 본성은 세 번째 요소에 해당합니다.

즉, 세 번째 가능성인데,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건이 마치 파이프라인처럼 흘러나오듯이, (끔찍한 비유이긴 하지만) 신의 근원적인 본성은 이 새로운 상황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포괄합니다. 이해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전체 가능성에는 어떤 새로운 상황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초적인 본성은 항상 예비 자원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제가 말한 건 앞으로 일어날 다음 사건입니다. 물론,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건 아니죠.

삐. 조심해, 또 삐 소리가 나네. 삐.

아니요, 그런 식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소리를 예로 들었으니, 아주 복잡하지만 웅장한 교향곡과 같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가닥으로 비유하자면, 벨 전화 회사의 케이블처럼 매우 복잡해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데 일주일이나 걸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보시다시피, 사건들이 서로 얽히고설키며 수많은 연결고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그는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바로 우주를 질서정연하게 다스리는 신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질서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혹은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구체화의 원리라고 합니다. '구체화'라는 단어를 보면 아마 '구체적인'이라는 생각이 들겠죠.

아니, 그러지 마세요. 그의 말이나 전문 용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는 '응결'이라는 단어를 '응결'의 동의어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라틴어를 아시든 모르시든, 'concrecence'라는 단어는 '함께 자라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Cresco'는 동사로 '자라다'라는 뜻이고, 'con'은 '함께 자라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Cresco'라는 이름의 식용유가 있었습니다 .

지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그것들은 모두 고체가 아닌 액체가 되었습니다. 크레스코는 케이크를 부풀게 하는 요리용 기름이었죠. 그래서 응고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체화, 응집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성장이 계속되어 교향곡의 조화에 이르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이 세상의 과정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범주는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은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신입니다. 하지만 화이트헤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자연적인 과정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화이트헤드의 글에는 신이 그러한 과정 중 최초의 존재였다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내일 밤 강연 제목인 '신과 빅뱅'은 화이트헤드 신학자에게는 전통적인 유신론자와는 매우 다른 의미를 지닐 것 같네요. 화이트헤드 신학자는

신을 창조자도 아니고, 종결자도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 종결자라는 표현은 이제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쓰는 용어 같네요.

하나님은 마무리를 짓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종말론을 갖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종말론을 갖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게 끝이죠. 종말론 없는 목적론이라고요? 네. 목적론은 그냥 끝없이 계속 이어지죠.

그러니까 조화는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영원한 조화죠. 이해 되시죠? 네.

그것은 영원한 조화입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가 어떤 종착점을 향해 나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은 구체화의 원리이며 질서의 원리입니다.

그는 또한 신을 제한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신의 초월적 본성으로 인해 가능한 것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제한된 가능성만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화이트헤드에게 있어 세상의 과정은 스스로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그럴 수도 없다. 신의 주관적 본성은 그러한 가능성을 내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가 하나님의 창조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창조성은 세상의 모든 과정 속에서 아무리 미시적이든 거시적이든 모든 사건에 최초의 주관적인 목적을 부여하는 데 있어 사랑과 보살핌으로 발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또한 하나의 사건이며, 모든 것을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이해되지 않아요? 이것은 범신론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어떤 의미의 전통적인 유신론도 아닙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일부 과정 신학자들은 이를 일종의 범신론으로 봅니다. 모든 것이 신이라는 경험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이라는 초월적이고 포괄적인 경험은 세상 의 모든 과정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 범신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제 친구가 이런 주제를 논할 때마다 늘 묻는 것처럼, 여러분도 아마 "경험자란 무엇인가?"라고 묻고 싶어질 겁니다. 화이트헤드는 이렇게 답합니다. "좋습니다. 당신의 경우, 지각자로서 지각자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인간이란 전체와의 통일성 과 조화를 이루는 일련의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 정체성에 대한 기억 이론입니다.

이해되지요? 이걸 과정 철학이지, 실체 철학이 아니니까요. 기질, 물질, 실체, 생각하고 느끼는 사물을 찾지 마세요. 생각하고 느끼는 사물이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는 그 자체를 찾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화이트헤드가 한 말 중 일부를 읽어드릴 테니 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그의 대표작인 『과정과 실재』입니다. 그리고 책의 후반부에는 신과 세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유신론 철학의 위대한 형성기, 즉 이슬람교의 등장으로 마무리된 시기에 문명과의 지속적인 공진화 속에서 세 가지 사상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셋'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언급하는지 주목해 보세요. 바로 그 변증법적 삼분법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 가지 사상이 드러나는데, 세부적인 면에서는 여러 차이가 있지만, 각각 첫째는 신을 황제의 모습으로, 둘째는 신을 도덕적 에너지의 의인화로, 셋째는 신을 궁극적인 철학적 원리의 모습으로 형상화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세 가지 사상은 각각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는 황제들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로마 원로원에 의해 신격화되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마치 신처럼 여겨졌습니다. 즉, 황제가 된 것입니다.

신은 제국의 통치자입니다. 도덕적 에너지의 두 번째 의인화는 히브리 예언자들입니다. 세 번째이자 궁극적인 철학적 원리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보다 앞선 인도와 불교 사상이 존재했으며, 히브리 예언자들에게서도 이전 사상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이슬람교와 신성한 황제들은 모든 시대와 장소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명백하며 이상숭배적인 유신론적 상징주의를 나타낼 뿐이다. 유신론 철학의 역사는 이 세 가지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이 결합된 다양한 단계를 보여준다.

하지만 기독교의 기원에는 갈릴리라는 설이 있습니다. 갈릴레오가 아니라 갈릴리 말입니다. 네, 기독교의 갈릴리 기원에 대해서요.

이 제안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주요 흐름 중 어느 것보다도 잘 맞지 않습니다. 지배하는 카이사르나 무자비한 도덕주의자, 혹은 동요하지 않는

주도자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작용하는 세상의 섬세한 요소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왕국의 현재적 현실 속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서 보상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질 때마다 모두 눈에 띄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모두 세어져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일이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큰 과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 신이었죠. 그런데 그는 기독교 신학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예수를 사랑의 사람으로 강조하는 특정 자유주의 신학 전통 속의 예수 이미지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그런 배경 때문에 매우 활발하게 활동했죠.

그럼, 346번을 봅시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가 당신의 본성을 완성함으로써 과도기의 혼란을 부드럽게 구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생산력과 생산력의 싸움, 파괴력과 파괴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원인은 환자가 자신의 개념적 조화를 이루는 압도적인 합리성을 발휘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그의 개념적 조화에서 나타나는 압도적인 합리성은 무엇일까? 바로 근원적 본성의 우위, 즉 모든 가능성을 개념적으로 조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모든 것을 조화롭게 작용시켜 선을 이루는 능력을 지닌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인내심이란 참되군요. 파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악의 반항은 하찮은 것으로 치부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개인적인 기쁨과 슬픔을 통해 필요한 대조를 만들어내어 이룩한 선은 완성된 전체와의 관계를 통해 구원받습니다.

잃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피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은 진리, 아름다움, 선함에 대한 비전을 통해 세상을 인도하시는, 부드러운 인내심을 가진 세상의 시인이십니다. 그리고 창조는 최종 목적, 즉 영원성에 도달할 때 영원성과 변화의 조화를 이룹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그는 사랑으로 이끄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한 곳에서, 아니, 그의 책 중 한 권에서 사랑에 대해 장황하게, 아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는 그 사랑을 에로스로 간주합니다. 바로 『사상의 모험』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사랑을 아가페가 아닌 에로스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에로스는 플라톤 철학에서 사랑을 뜻하는 단어인데,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선에 대한 사랑입니다. 따라서 신은 이러한 포괄적인 선에 대한 사랑 안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선을 향한 열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이 주신 최초의 목표, 최초의 주관적인 목표가 널리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선을 향한 열망 말입니다.

그리고 중세 목적론을 떠올려 보세요 . 자연의 모든 것은 본래의 선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심지어 선이 무엇인지 잘못 아는 인간조차도 , 비록 "악이 내게 선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했을지라도, 여전히 선을 갈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런 식으로 그 목적론을 되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세상의 순환 과정이 계속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림은 이 과정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사실 성육신도 이 과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는 역사적 예수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성육신하신 삼위일체의 제2위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헤겔이나 화이트헤드처럼 기독교 신학적 개념들은 단지 상징일 뿐이며, 개념적으로 참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헤겔 철학에서 예술에서 종교, 그리고 철학으로 이어지는 절대정신의 최종 삼위일체를 기억하십시오. 종교는 상징적 표현이고, 철학은 그것을 개념화합니다. 따라서 종교적 담론 은 상징적 담론입니다.

그렇다면 성육신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역사와 자연 속에서 임박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활동을 상징합니다. 사실 몇 년 전, 저는 화이트헤드와 과정 신학에 대한 세미나를 가르쳤는데, 학기 후반에는 화이트헤드를 공부한 후 각 수강생이 20세기 과정 신학자 한 명을 맡아 그 신학자가 특정 핵심 신학적 주제에 대해 무엇을 말했는지 연구하도록 했습니다.

중 성육신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을 제시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 그들은 항상 성육신을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다른 주요 기독교 교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불가능하다고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들에게 읽으라고 했던 자료들을 제가 직접 다 읽은 건 아니에요. 학생들이 제 대신 읽어준 거죠. 세미나를 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조사를 맡기세요. 가끔은 저도 직접 다시 조사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은퇴하면 제가 가장 아끼는 책이 화이트헤드의 책이라고 누군가에게 얘기했었죠.

저는 40년 동안 화이트헤드를 읽고 연구해 왔습니다. 이제 결실을 맺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는 지금 보시는 모든 문헌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누가 그 점에서 화이트헤드를 뛰어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헌 상으로는 전혀 그런 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신을 묘사할 때, 저는 대명사 사용에 있어서조차 의문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가 생각하는 '인간'의 정의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점이 걱정되시는 거죠? '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 자체가요? 그분이요? 네, 네. 좋은 질문이네요. 그분은 신이 실제로 의식과 자의식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약간의 의심이 듭니다. 혹시 그가 어떤 존재로부터 오는 영향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신으로부터 오는 영향력일까요? 당신은 그가 모든 것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그 패러다임은 의식이라는 것이죠.

아니요, 제 생각에는 그가 의식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녹음되고 기록된 그의 저녁 대화들을 보면 그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확실히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해가 좀 풀릴 것 같습니다.

화이트헤드의 경우, 예를 들어 토마스 아퀴나스와는 대조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신은 창조의 효율적 원인, 형식적 원인, 목적적 원인입니다. 그렇죠?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적 원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화이트헤드에게 있어서 신은 형식적 원인과 목적적 원인이지만, 효율적 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근원적인 본성이 모든 논리적 가능성과 논리적 질서를 구상한다는 점에서 형식적 원인이십니다. 그렇죠? 그분은 초월적인 본성을 통해 사건들을 이끌어내시므로 목적적 원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용하시는 용어는 '이끌어내다'입니다.

저는 전문 어부는 아니지만, 미끼가 뭔지는 압니다. 미끼는 물고기의 꼬리를 걸어차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유인하는 역할을 하죠.

유혹은 최종 원인이자 효율적 원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종 인과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유혹의 승리 방식이고, 중요한 것은 이상(理想)의 승리 방식입니다. 화이트헤드에게 있어 신과 세상의 관계는 형식적 원인이자 최종 원인이자, 효율적 원인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은 행동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기서 말하는 행동이란 성경 역사에 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행적, 즉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위대한 행적을 의미한다면 말입니다.

당신이 제기하신 성육신이나 재림에서의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행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형이상학의 근본적인 본질이 하나님의 행위를 배제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몇 년 전에 화이트헤드에 대한 글을 썼는데, 제목은 '하나님은 왜 행동할 수 없는가'였습니다. 이 글은 로널드 내쉬가 편집한 '과정 신학'이라는 책에 실려 있습니다.

그 책은 도서관에 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 신이 행동할 수 없는 이유는 화이트헤드의 신이 본질적으로 헤겔적인 신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슬라이어마허의 신처럼, 인격적인 행위자라기보다는 존재의 근원에 더 가까운 신이죠.

보시다시피, 마치 이러한 행위 주체 범주가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당신은 오직 존재의 근본에만 의존하는 겁니다.

자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궁극적인 근거. 따라서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에서처럼 특별한 계시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내면에서 내재되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행위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내면의 신성한 창조력에 의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화이트헤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라이어마허주 의 전통, 즉 낭만주의 전통에 익숙하시다면 , 화이트헤드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이트헤드는 위즈워스의 시를 마치 성경처럼 읽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말 기억나세요? 제 생각엔 이걸 19세기 신학을 20세기 과정 형이상학으로 미화한 버전 같아요. 모든 현실의 본질인 창조의 원리를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리고 그런 시도를 하는 과정 신학자들이 몇몇 있습니다. 몇몇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죠. 제 생각에 찰스 하트손은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과정 신학자일 겁니다.

그는 화이트헤드 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 그와 유사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는 하버드에서 수년간 강의를 했고, 그 후 시카고에서, 은퇴 후에는 텍사스에서 강의했습니다. 하트손도 그랬습니다.

범신론 자 였으며, 창조성이 신이라면 범신론 자일 수도 있습니다 .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가장 잘 알려진 과정 신학자는 존 코브일 텐데, 제가 알기로는 캘리포니아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 재직 중입니다.

존 콕.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지금은 그들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그리고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책들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의 저서인 『현대 세계의 과학』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서평을 쓸 만큼 충분히 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번 읽어보고, 함께 감상을 나누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